

허정무號 오늘 재소집 “이란 잡자”

박지성 등 해외파 5인방 포함, 최종예 24명 확정

내달초 시리아·바레인과 평가전…6일 테헤란 입성

전력을 재정비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이란 원정에 나선다.

2주간의 제주도 전지훈련을 끝마치고 달콤한 설연휴를 만끽한 대표팀이 28일 오전 11시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재소집된다.

이번에 소집되는 대표팀은 다음달 11일 이란과의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전을 위한 24명의 최종예 멤버들이다.

허정무 감독은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 전지훈련을 소화한 22명의 국내파 중 서동현(수원), 송정현(전남), 임우환(전북)을 제외한 19명을 다시 불러들였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비롯한 박주영·이영표 등 해외파 5인방도 이란 원정길에 가세한다.

대표팀은 29일 오후 시차적응 훈련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 짐을

둔 뒤, 다음달 1일과 4일 시리아와 바레인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다.

두 차례의 평가전을 치른 대표팀은 6일 ‘결전의 땅’ 테헤란에 입성한다. 이란과의 대결은 남아공 직행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정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는 등 2승1무(승점 7점)로 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란은 1승2무(승점 5점)로 2위를 달리며 한국을쫓고 있다.

한국 대표팀이 이란전을 승리로 장식해 가장 먼저 승점 10점을 확보한다면 조 1, 2위에게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 직행에 한층 더 가서게 된다. 특히 세 경기를 원정경기로 소화한 만큼 승점 10점의 가치는 더욱 크다.

하지만 이란은 상대로 승점을 쓰는 게 쉽지 않은 않을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와 46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과 이란은 대표팀 간 상대전에서도 8승5무8패로 호각지세. 적진에서의 힘겨운 싸움인데다 경기가 열릴 테헤란이 해발 1천200m의 고지대라는 점도 한국에게는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다가 소속팀 일정을 소화해야하는 해외파들의 대표팀 합류도 늦어질 것으로 보여 이란전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허정무 감독은 이란전을 대비해 부상에서 회복해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주영(AS 모나코)을 비롯한 이근호(대구), 정성훈(부산), 정조국(서울)으로 공격진을 꾸렸다.

중원에는 ‘캡틴’ 박지성을 필두로 기성용·한태유·이청용(이상 서울), 김정우(성남), 염기훈(울산), 하대성(전북)을 배치했다.

골문은 ‘돌아온 수문장’ 이운재(수원)와 김영관(울산), 정성룡(성남)에게 맡겼다. 이영표(도르트문트)와 김동진(제니트), 이정수(교토), 오범석(사마리), 김치곤·김치우(이상 서울), 강민수(전북), 조용형(제주), 김창수(부산), 최효진(포항)은 수비진영을 지킨다.

28일 남아공 무대를 향해 허정무호의 또 다른 항해가 시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철용 감독, 페루 여자배구대표팀 맡는다

〈前 송원여성 감독〉

2년간 현지 장관수준 대우 받을 듯

김철용(55·사진) 전 여자배구대표팀 감독이 페루 여자대표팀을 이끈다.

김 전 감독은 27일 “오늘 페루에서 전화를 받았다. 2년간 페루 여자대표팀을 맡게 됐고 2월4일 출국한다고”고 말했다.

호남정유를 이끌고 여자배구 겨울리그 9연패를 달성하면서 92연승 신화를 쓴 김 전 감독은 국가대표팀을 맡아 세 차례나 올림픽 본선으로 이끈 명장이었으며 지난 2005년에는 광주송원여성 배구팀도 맡았었다. 2005~2006 시즌에는 흥국생명 지휘봉을 잡고 정규리그 1위와 웹페인 결정전 우승을 동시에 일



겠으나 선수단 관리 소홀을 이유로 중도에 해임됐고 이후 아인으로 물러왔다.

김 전 감독이 국내 실업과 프로팀을 거친 지도자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외국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앉은 데는 페루 여자 배구의 산

파로 통하는 바다복 전 감독의 추천이 컸다.

박 전 감독은 1982년 세계선수권 은메달과 1988년 서울올림픽 은메달, 1986년 세계선수권 동메달을 획득하고 페루 배구를 강팀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 공로로 지금도 페루 배구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감독은 “전부터 친아들처럼 아껴주시던 박 전 감독님이 다리를 놔주셨다. 4년간 페루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2주 전 개인 사정상 2년만 하겠다고 답했고 오늘 최종 결론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감독은 “세계무대를 노크해보고픈 꿈이 있었다.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기술 등을 페루에서 맘껏 펼쳐보이고 싶다. 남미 선수들은 탄력이 좋아 조직력을 접목시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나는 사과하는 것에 반대한다. 특히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거나 수치스러운 승리라는 데 의견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댈러스 아카데미 선수들은 이후 미국 전국 방송 뉴스 쇼에 출연하는가 하면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 흥 경기에 초대를 받았고 나이키 후원으로 2월 NBA 올스타전 관람 기회도 부여 받았다.

/연합뉴스

美 여고농구 100-0 이긴 학교 코치 해임

진 학교는 NBA 경기 초대 받아

미국 여고농구에서 100-0으로 상대팀을 꺾었던 학교가 코치를 해임했다.

미국 텍사스주 일간지인 댈러스 모닝 뉴스는 27일(이하 한국시간) 인터넷판에 “코베넌트 스쿨이 100-0으로 놀랐던 댈러스 아카데미에 사과한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미카 그라임스 코치를 해임했다”라고 보도했다.

최근 14일 댈러스 아카데미를 100-0으로 이긴 코베넌트 스쿨은 이후 댈러스 아카데미 측에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그라임스 코치는 한 농구 관련 사이트에

“나는 사과하는 것에 반대한다. 특히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거나 수치스러운 승리라는 데 의견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댈러스 아카데미 선수들은 이후 미국 전국 방송 뉴스 쇼에 출연하는가 하면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 흥 경기에 초대를 받았고 나이키 후원으로 2월 NBA 올스타전 관람 기회도 부여 받았다.

/연합뉴스



“8강전 탈락이라니…” 아쉬운 이태현

27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09 하이서울 설날 통합 장사씨름대회 백호·청룡 통합장사전에서 모래판에 돌아온 이태현이 8강전에서 우승에 게 패한 뒤 쓰쓸한 웃음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경수, 사상 첫 2,000 공격득점



LIG손보, 대한항공 꺾고 3위

LIG손해보험의 강서브를 앞세워 라이벌 대한항공을 꺾고 3위로 올라섰다.

LIG손보는 27일 송파구 방이동 올립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계속된 NH 농협 2008-2009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4라운드 경기에서 대한항공에 3-1(21-25 25-19 25-27 25-23)로 역전승했다.

이로써 양팀은 10승8패로 둘째를 이뤘으나 LIG손보가 접수 득실률에서 앞서 3위에 도약했고 대한항공은 4위로 한 단계 추락했다.

LIG손보는 회사 창립 50주년을 맞아 수부가 총출동한 이날 값진 승리를 일궈 기쁨이 배가 됐다.

주포 이경수(26득점)는 프로배구 통산 최초로 공격득점으로만 2천점을 돌파하는 등

공수에서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맹활약했다.

3라운드 최종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대한항공을 꺾은 LIG손보의 상승세가 4라운드에서도 이어졌다.

수비 조직력에서 밀려 중반 주도권을 빼긴 끝에 1세트를 대한항공에 내준 LIG손보는 이후 장기인 서브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LIG손보는 전날까지 서브 득점으로 67개를 올려 전체 1위를 달렸다.

2세트에서 김요한이 3점을 보태는 등 서브에 이은 김우현의 3점이 3점으로 2세트를 확보해 끝에 대한항공에 3-1로 역전승했다.

3세트에서도 7-9로 뒤진 이경수의 서브에서 역전이 시작됐다. 이경수는 에이스를 올리지는 못했으나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로 대한항공 리시브를 흔들었고 LIG손보는 그 틈을 타 연속 4득점하면서 전세를 뒤집었다. 리시브와 디그로 수비에서 온몸을 날린 이경수는 18-15로 앞선 3세트에서 날카로운 왼쪽 직선강타로 2천 공격득점을 자축했다.

/연합뉴스

윤정수 통합장사 등극

설날 장사씨름대회 3연패

천하장사 윤정수(수원시청)가 기축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젖혔다.

윤정수는 27일 종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09 하이-서울 설날 통합장사씨름대회 마지막 날 백호·청룡통합장사 결승전(5전3선승제)에서 유승록(용인백옥)을 3-0으로 가볍게 물리쳤다.

작년 12월 남해대회에서 천하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던 윤정수는 한달만에 다시 우승을 차지하며 설날대회 3년 연속 우승도 이뤄냈다.

남해대회 결승전에서 천하장사 타이틀을 내줬던 유승록은 한달만에 제대결에서도 윤정수의 벽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윤정수는 첫째판을 시작하자마자 밀어치기로 유승록을 쓰러뜨렸다. 천하장사의 여유인 듯 윤정수는 유승록의 다리에 쥐가 나자 주물러 주기도 했다.

유승록은 윤정수의 저돌적인 공격에 경기장 밖으로 다리를 빼다가 경고를 받아 둘째판을 내줬고 2-0으로 앞서간 윤정수는 더 이상 승부를 길게 끌고 가지 않았다.

셋째판 30초 남기고 유승록은 다시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경고를 받았고 윤정수는 편안하게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

/연합뉴스

김두현, 프리미어리그 첫 골

김두현(27·웨스트 브로미치 앤필드)이 하 웨스트브롬)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 입성 후 기다리던 첫 골을 사냥했다.

김두현은 지난 25일(한국시간) 영국 혼손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8-2009 잉글랜드 FA컵 4라운드(32강) 웹파인십(2부) 소속의 번리와 홈경기에서 1-1로 맞선 전반 45분 프리킥 골을 터뜨렸다.

한국인으로는 다섯 번째로 프리미어리그 퀸이 이룬 김두현의 시즌 첫 골. 지난해 8월 17일 아스널전을 통해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김두현이 정규리그 13경기(선발 8경기)와 FA컵 2경기 등 15경기 출장 만에 가능한 첫 득점포다.

28일(수)

▲V리그 <삼성화재 : 우리캐피탈>(14:50), <도로공사 : GS칼텍스>(18:40), <한국전력 : 신협상무>(18:40·KBSN SPORTS)

▲프로농구 <신세계 : 신한은행>(16:50), <LG : KCC>(18:50·SBS스포츠), <모비스 : 오리온스>(18:45·Xports)

▲호주 오픈 테니스 남녀 8강전(17:30·MBC ESPN)

리치의 주방
광주직영점 **OPEN**

(주)행복출발
대한민국 NO.1 재혼전문회사